

Gold Angle

N/A

2026-05-16 · Conviction ○○○○○○ · N/A

Verdict

Action:

Invalidation:

Risk Factors:

Macro Picture

Regime: unknown

Key Themes:

Dominant Narrative: 매크로 분석 실패

Reality: 에러: Request timed out.

Hypotheses

Key Question:

Tensions

No significant tensions detected.

Eval Scores

Overall	<div style="width: 0%;"></div>	0
Tension	<div style="width: 0%;"></div>	0
Hypothesis	<div style="width: 0%;"></div>	0
Evidence	<div style="width: 0%;"></div>	0
Verdict Logic	<div style="width: 0%;"></div>	0

시장의 뷰: 시장 참여자들은 2026년 5월 기준, 높은 실질금리와 달러 강세가 금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, 연준의 '고금리 장기화' 기조가 노동시장의 견조함 (실업수당 21 만 건) 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완화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위축되었고, 금의 단기 조정세는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가 실질금리 상승 압력에 의해 압도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.

결론: 시장의 단기 조정 내러티브가 유효함. 높은 실질금리와 달러 강세가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를 압도하여 금 가격이 추가 하락하거나 횡보할 것임. 10년물 국채 금리가 4.0% 이상 유지되고 T10Y2Y 스프레드가 양수 구간을 지속하는 한, 노동시장의 견조함 (실업수당 21 만 건) 이 연준의 '고금리 장기화' 의지를 뒷받침하며 금의 기회비용을 높여 매도 압력을 지속시킴. [HIGH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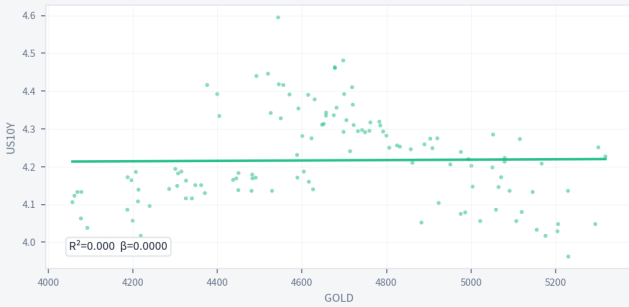
하지만 최근 수집된 증거는 시장의 내러티브가 매크로 펀더멘털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(US10Y) 이 4.6% 로 4.0% 임계치를 상회하여 금의 기회비용을 높이고 있으며, 실업수당 (ICSA) 이 211,000 건으로 노동시장이 견조하게 유지되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또한, 금 가격 (GOLD) 이 최근 1개월간 -6.46% 하락한 것은 '고금리 장기화' 내러티브가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하며, GOLD-US10Y 상관관계가 0.0 으로 스테그플레이션 모멘텀이 아직 작동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. 직전 판정 (B 승) 에서 제시된 무효화 조건인 'US10Y 4.0% 미만 급락 및 스프레드 인버전'은 현재 US10Y 4.6% 와 T10Y2Y 스프레드 0.5% 라는 데이터로 인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. 소비자 심리 지수 (53.3) 의 저조함은 경기 둔화 우려를 시사하지만, 이는 아직 금리 인하를 강제할 만큼의 실물 경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으며, 현재로서는 고금리 환경이 우세한 상황입니다.

→ GOLD 비중 축소 및 DXY 비중 확대

무효화: US10Y 수익률이 2 주 연속 4.0% 미만으로 급락할 경우

대안: US10Y: 실질금리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 내러티브가 가격에 완전히 반영된 상황에서, | DXY: 실질금리 상승과 미국 경제 데이터의 견조함 (실업수당 21 만 건) 이 | TIP: 명목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일반 국채의 기회비용 증가 우려가 지배적이지만,

GOLD vs US10Y — 5Y



GOLD vs US10Y — 6M (R² drop: 0.000)

